

# 결혼이민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활용 정책방안 연구

방성이<sup>o</sup>

<sup>o</sup>조선대학교

e-mail : bsaep@hanmail.net<sup>o</sup>

## A Study on the Computer Use Policy for the Digital Divide of Marriage Immigrants

Sung A, Bang<sup>o</sup>

<sup>o</sup>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 Lecturer

### ● 요약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정보격차 수준의 완화를 통하여 정보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공공기관과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마련, 셋째,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체, 송금, 계좌조회, 공인인증서, 세금납부, 각종 민원서류발급, 공과금, 고지서 확인, 각종 복지 및 보조금 신청,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검색 등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넷째, 인터넷 비이용자들을 위한 교재개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정책 확대, 다섯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의 운영을 활성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결혼이민자(Married immigrant), 정보화(Informatization), 정보격차(Digital Divide)

## I. Introduction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1]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의 및 개념 또한 다양하다.[2][3] 본 연구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ICT강국으로 우수한 정보화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반면에 ICT이용이 미숙한 사람들은 정보격차로 인한 정보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국제화로 인해 국내로 이주한 결혼이민자들의 증가로 이들의 정보불평등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면서[4] 또 다른 사회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5] 우선적으로 언어소통과 문화차이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는 취업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결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여 삶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사회 구성원의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재 한국의 결혼이민자의 현황들을 검토하였

다. 둘째, 우리나라의 결혼이주민들의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검토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의 대책들을 논의하고 현실적인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Married immigrant Status

결혼이민자 현황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기준으로 중국국적이 가장 많으며(37.1%), 베트남(27.1%), 일본(8.6%)등의 순으로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중국과 베트남의 결혼이민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국과 태국의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

Table 1. Current Status of Married Immigrants(2017)

division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China	62,400	60,663	58,788	56,930	57,644
Vietnam	39,854	39,725	40,847	41,803	42,2058
Japan	12,220	12,603	12,861	13,110	13,400
Philippines	10,383	11,052	11,367	11,606	11,783
Cambodia	4,650	4,618	4,555	4,473	4,459
USA	2,845	3,006	3,192	3,354	3,471
Thailand	2,643	2,675	2,821	3,182	3,671
Mongolia	2,368	2,394	2,384	2,381	2,396
Uzbekistan	2,141	2,219	2,244	2,302	2,367
Russia	1,305	1,308	1,305	1,182	1,367
Canada	1,268	1,300	1,295	1,318	1,345
Taiwan	645	740	823	929	1,072
Nepal	1,112	1,138	1,081	1,032	974
etc	6,802	7,404	7,953	8,765	9,303

Data : Statistical Yearbook of Foreign Policy(2017). 「Statistical Yearbook of Foreign Policy」.

## 2. Digital Divide and Married immigrants Access level for digital information

정보격차에 대해서 2003년도에 시행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의 제2조 1항에서 정보격차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보격차 개념적 특징은 한 마디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접근의 개별적

차이임을 알 수 있다.[7]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보격차지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2017년 결혼이민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2017년 81.0%로 전년대비 3.3%p 상승하였다. 영역별로는 디지털정보화접근 수준이 99.8%로 전년에 비해 2.9%p 상승하였고, 디지털 정보화역량 수준이 68.3%로 전년 67.3% 대비 1.0%p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디지털 정보화활용수준이 84.2%로 전년에 비해 5.8%p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디지털정보화 접근영역은 2017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구는 82.4%로 일반국민 보유율 82.6%보다 0.2%p 낮게 조사되었으며, 모바일스마트기기보유율은 78.6%로 일반국민 스마트 기기 보유율 88.7%보다 10.1%p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가구 내 인터넷 이용가능 여부영역에서는 결혼이민자 가구의 83.1%가 가구 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영역에서는 PC이용 능력의 7개의 항목 중 '인터넷을 통한 파일 전송'이 44.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능력이 32.1%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에서는 7개 항목 중 '다른 사람에게 파일 전송'능력이 56.4%로 가장 높았고,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능력이 3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 정보화활용 수준 영역에서는 인터넷 이용여부 조사결과,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77.0%로,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90.3%)보다 13.3%p 낮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이용기기는 결혼이민자의 주요 인터넷 이용기기는

Table 2.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2017)

division	marriage immigration	general public	note		
Digital information access level	Whether you have an available PC	82.4%	82.6%	0.2%p↓	
	Mobile device retention rate.	78.6%	88.7%	10.1%p↓	
	The Internet is available in the household.	83.1%	-	Year-on-year 0.5%p↑	
Digital information capacity level	PC usage ability	High-level items - 'Transfer files via the Internet' (44.9 percent) Low-level items - 'Malicious Code Testing and Treatment' (32.1%)			
	mobile device usage ability	High-level items: 'Transfer files to others' (56.4%) Low-level items - 'Malicious Code Test and Treatment' (35.0%)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level	Internet availability	77.0%	90.3%	13.3%p↓	
	internet use equipment	marriage immigration		PC(0.7%p↓) 스마트폰(2.7%p↑)	
		Smartphone(77.0%)			
		PC(56.7%)			
	Search and e-mail, content service utilization	Smart pad(17.6%)			
		Social Relation Service Utilization Rate	69.0%	86.8%	17.8%p↓
		Life service utilization rate	70.4%	86.7%	16.3%p↓
		Information production or share activity rate	60.1%	79.1%	19.0%p↓
		Online network activity rate	44.6%	55.3%	10.7%p↓
Online social participation rate		51.0%	70.2%	19.2%p↓	
Online economic activity rate		28.6%	36.3%	7.7%p↓	
totality	81.0%	49.9%	14.9%p↓		

Data :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7). 「A Study on the Digital Divide」

스마트폰이 77.0%, PC가 56.7%, 스마트패드가 17.6%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대비 결혼이민자의 PC인터넷 이용률(56.7%)은 2016년 57.4% 대비 0.7%p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률(77.0%)은 2016년 74.3%에 비해서 2.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메일 및 검색,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은 69.0%로 일반국민 86.8%보다 17.8%p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은 70.4%로 일반국민 86.7%보다 16.3%p낮게 나타났다. 생활서비스 이용률은 60.1%로 일반국민 79.1%보다 19.0%p 낮게 나타났다. 정보생산 또는 공유활동률은 44.6%로 일반국민 55.3%보다 10.7%p낮게 나타났다. 온라인네트워킹 활동률은 51.0%로 일반국민 70.2%보다 19.2%p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28.6%로 일반국민 36.3%보다 7.7%p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경제활동률은 35.0%로 일반국민 49.9%보다 14.9%p 낮게 나타났다.[8]

### 3. Analysis by domain for the digital divide of married immigrants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전년대비 3.3%p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일반국민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10% 이상의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율과 생활서비스 이용률이 일반국민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활동과 지도 및 교통정보, 예약/예매 및 제품구매,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생활복지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정보획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가 36.6%,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63.4%로 자발적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이용자의 이유로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사용방법이 어려워서’가 88.1%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이용요금이 부담스럽다(28.8%), 이용할 기기가 없어서(23.7%), 어려움 해결에 자신이 없어서(23.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소 폭이 높았던 영역인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율과 생활서비스 이용률 영역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III. Conclusions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결혼 이주민의 정보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활발한 활동과 교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ICT를 근간으로 하는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정보화 능력은 사회적 소통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능력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점에 정보 활용능력이 부족하다면 사회적 관계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다.[9]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공공기관과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접근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가 적극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써 ‘지역정차사회참여 관련 등의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온라인 투표나 여론참여 등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이체 및 송금, 계좌조회, 신용카드 조회, 제품구매를 위해 가격비교, 제품 평 검색, 공인인증서 보유와 세금납부, 각종 민원서류 발급, 공과금, 고지서 확인, 각종 복지 및 보조금 신청,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검색, 민원제기 및 의견건의 등의 업무들을 결혼이민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 비이용자들의 이유가 사용방법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일회성 교육의 수준이 아닌 이들에게 맞는 교재개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위해 교육기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및 창업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민자는 이방인이 아닌 똑 같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구성원이다. 따라서 기술 중심이 아닌 사회중심에 초점을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ICT국가라고 말할 수 있기에 이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들에게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써 성숙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The Basic Law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 [2] Seol, Dong - Hoon, et al(2005). "Survey on the status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policy for health and welfare support."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3] Han, Gang-soo(2006). Research Report: Family Life, Conflict and Adaptation of Women in Marriage Immigrants in Rural Areas.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39 (1), 195-219.
- [4] Castells, M. (1999).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Culture. Vol. 3, the end of the millennium. Blackwell.
- [5] Kang, Hwi-Won(2006). "Integration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Factors and Policy Directions", 「Public policy review」, pp.5-34.
- [6] Statistical Yearbook of Foreign Policy(2017). 「Statistical Yearbook of Foreign Policy」.
- [7] Law on eliminating digital divide
- [8]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7). 「A Study on the Digital Divide」.

- [9] Byun, Jong-Im, et al(2005).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Lifelong Learning City for Local Development." Seoul: KEDI.